

본 자료는 채권운용전략에서 일부내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수학적 도출과정을 정리한 내용입니다. 시험 대비하여서는 직관적 이해만으로도 충분하지만 보충자료를 통해 이해도를 높여주시기 바랍니다.

presented by Y.B Jeon

·표기 해설

·Par : 채권액면가 P : 채권가격 , c : 액면이자율 , y : 만기수익률 , n : 채권 만기

### 1. 채권수익률 상승하면 채권가격은 하락한다.

만약 무이표채의 경우 가정하면

$$P(y) = Par \times (1+y)^{-n} \text{ 이므로 이를 } y \text{에 대하여 미분하면}$$

$$\frac{dP}{dy} = -n \times Par \times (1+y)^{-n-1} < 0$$

채권수익률과 채권가격간에는 음(-)의 관계

### 2. 가격곡선 우하향 형태이면서 기울기가 완만해진다. (볼록성)

이는 채권가격곡선의 기울기의 변화를 뜻하는데 채권수익률과 채권가격간 변화가 선형관계를 이루지 않는다는 것을 암시.

이는 곡선의 기울기의 변화 즉, 2차 미분의 부호를 통해 확인 가능!

$$P(y) = Par \times (1+y)^{-n}$$

$$\frac{dP}{dy} = -n \times Par \times (1+y)^{-n-1}$$

$$\frac{d\left(\frac{dP}{dy}\right)}{dy} = \frac{d^2P}{dy^2} = (-n)Par(-n-1)(1+y)^{-n-2}$$

$$= n(n+1)Par(1+y)^{-n-2} > 0$$

=> 수익률 상승하는 경우 기울기도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!!!

### 3. 장기채권이 단기채권보다 가격의 상대적변화율이 높다.

$$\frac{dP}{dy} = -n \times Par \times (1+y)^{-n-1} < 0$$

$$\frac{dP}{dy} = \frac{-n \times Par}{(1+y)^{n+1}} \Rightarrow dP = \frac{-n \times Par}{(1+y)^{n+1}} \times dy$$

☞ 이는 y가 변할때의 채권가격의 변화폭을 의미!

만기가 다른 채권간에 채권가격이 다르므로 가격의 변화폭을 비교하는 것보다는 채권가격변화율을 비교하는 것이 보다 타당함.

그러므로 다음의 식으로 변환하면 (절대값으로 표시 한 것임)

$$\left| \frac{dP}{P} \right| = \frac{\frac{n(Par)(dy)}{(1+y)^{n+1}}}{\frac{Par}{(1+y)^n}} = \frac{n(dy)}{1+y} \quad \text{☞ 가격변화율은 } n \text{에 비례!}$$

### 4. 금액듀레이션(Dollar Duration : DD)

☞  $DD = -dP/dy$  (:항상 양의 값을 갖도록 한 것임( $dP/dy < 0$  이므로))

금액듀레이션은 만기수익률의 변화에 대한 채권가격의 절대적 변화의 관계를 나타낸것!

[다른 표현]

$$\frac{dP}{P} = -MD \times dy \rightarrow dP = -MD \times P \times dy = -DD \times dy \text{ 이므로 } DD = -\frac{dP}{dy}$$

$\Delta y$ 가 작을 경우는 다음과 같이 표시가 가능하다.

$$\Delta P \approx -DD \times \Delta y$$

## 5. 수정듀레이션(Modified Duration : MD)

$$MD = \frac{DD}{P} = \frac{-\frac{dP}{dy}}{P} = \frac{(-\frac{dP}{P})}{dy}$$

즉 채권의 수정듀레이션은 그 채권의 금액듀레이션을 채권가격으로 나누어 상대적인 수치로 변환한 값!

$$MD = \frac{DD}{P} = \frac{-\frac{dP}{dy}}{P} = \frac{-\frac{dP}{P}}{dy} \text{ 이므로, } MD \times dy = -\left(\frac{dP}{P}\right) = (-\text{채권가격의 상대적 변화율})$$

이 된다. (-) 부호는 단지 MD 수치를 (+)로 전환하기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, 결국

$$MD \times dy = \text{채권가격의 상대적 변화율}$$

현실적으로 이자율의 상승은  $dy$ 가 아니라 25bp, 50bp 등의 값을 가지는  $\Delta y$ 이므로  $dy$ 를  $\Delta y$ 로, 또 가격변화  $dP$ 를  $\Delta P$ 로 대체하면  $MD \times \Delta y \approx -(\Delta P/P)$  이 성립한다.

양변에 100을 곱하면,

$MD \times \Delta y \times 100 \approx -(\Delta P/P) \times 100$  은 “채권가격의 변화”를 나타낸다. 이제

$\Delta y$  100bp 상승을 가정하면,

$MD \times (0.01) \times 100 \approx -(\Delta P/P) \times 100$ , 즉

$MD \approx -(\Delta P/P) \times 100$  이 된다. 그러므로 MD는 대략적으로

“이자율이 100bp만큼 상승할 때의 채권가격의 % 변화”

## 6. 이표채 수정듀레이션 (MD)

$$MD = D/(1+y)$$

[증명]

$$\begin{aligned}
P &= \sum_{t=1}^n \left( \frac{CF(t)}{(1+y)^t} \right) = \sum_{t=1}^n (CF(t) \cdot (1+y)^{-t}) \\
\frac{dP}{dy} &= \sum_{t=1}^n (-t \cdot CF(t) \cdot (1+y)^{-t-1}) \\
-\frac{dP}{dy} &= \sum_{t=1}^n (t \cdot CF(t) \cdot (1+y)^{-t-1}) = \sum_{t=1}^n \left( \frac{\frac{CF(t)}{(1+y)^{t+1}} \cdot t}{P} \right) \\
MD &= \frac{\left( -\frac{dP}{dy} \right)}{P} = \frac{\sum_{t=1}^n \left( \frac{CF(t)}{(1+y)^{t+1}} \cdot t \right)}{P} = \sum_{t=1}^n \left( \frac{\frac{CF(t)}{(1+y)^{t+1}} \cdot t}{P} \right) \\
&= \sum_{t=1}^n \left( \frac{\frac{1}{(1+y)} \frac{CF(t)}{(1+y)^t} \cdot t}{P} \right) = \frac{1}{(1+y)} \cdot \sum_{t=1}^n \left( \frac{\frac{CF(t)}{(1+y)^t} \cdot t}{P} \right) \\
&= \frac{1}{(1+y)} \cdot D
\end{aligned}$$

## 7. 매컬리 듀레이션 (Macaulay Duration: D)

듀레이션과 채권가격 변동성

$$P = \frac{C}{1+y} + \frac{C}{(1+y)^2} + \dots + \frac{C}{(1+y)^n} + \frac{Par}{(1+y)^n} \quad (\text{단, } C = Par \cdot c)$$

$$\frac{dP}{dy} = \frac{(-1)C}{(1+y)^2} + \frac{(-2)C}{(1+y)^3} + \dots + \frac{(-n)C}{(1+y)^{n+1}} + \frac{(-n)Par}{(1+y)^{n+1}}$$

$$\frac{dP}{dy} = -\frac{1}{1+y} \left[ \frac{1C}{1+y} + \frac{2C}{(1+y)^2} + \dots + \frac{nC}{(1+y)^n} + \frac{nPar}{(1+y)^n} \right]$$

$$\frac{dP}{dy} \frac{1}{P} = -\frac{1}{1+y} \left[ \frac{1C}{1+y} + \frac{2C}{(1+y)^2} + \dots + \frac{nC}{(1+y)^n} + \frac{nPar}{(1+y)^n} \right] \frac{1}{P}$$

밑줄 친 부분이 Macaulay Duration 이다.

$$\text{Macaulay Duration} = \sum_{t=1}^n \frac{\frac{CF(t)}{(1+y)^t} \times t}{P} \quad \text{다시 정리하면}$$

$$\frac{dP}{dy} \frac{1}{P} = -\frac{1}{1+y} \cdot D$$

$$\frac{dP}{P} = -D \cdot \frac{dy}{1+y} \quad \text{가 된다.}$$

다르게 표시하면  $D = - \frac{\frac{\Delta P}{P}}{\left( \frac{dy}{1+y} \right)}$  로 수익률 변화에 대한 민감도 이해 가능

$$MD = \frac{D}{1+y} \text{ 이므로}$$

$$\frac{\Delta P}{P} = -MD \cdot dy$$

## 8. 무이표채의 메컬리듀레이션

무이표채권의 경우 현금흐름이 만기에 한번만 발생하므로 듀레이션은 다음과 같다.

$$D = \sum_{t=1}^n \left( \frac{\frac{CF(t)}{(1+y)^t}}{\frac{CF(n)}{(1+y)^n}} \cdot t \right) = \frac{\frac{CF(n)}{(1+y)^n}}{\frac{CF(n)}{(1+y)^n}} \cdot n = \frac{CF(n)}{CF(n)} \cdot n = n$$

## 9. 금액컨벡시티의 정의

$$DC = \frac{d\left(\frac{dP}{dy}\right)}{dy} = \frac{\frac{d^2P}{dy}}{dy} = \frac{d^2P}{dy^2}$$

여기서  $P$  = 채권의 가격,  $y$  = 채권의 만기수익률이다. 시장의 현물이자율 곡선은 수평이며 또 평행 이동한다고 가정한다.

[채권가격의 변화와 금액컨벡시티]

만기수익률 변화  $\Delta y$ 에 따른 채권가격의 변화  $\Delta P$ 를 추정할 때, 테일러의 정리 중 2차 도함수까지 사용하여  $\Delta P$ 의 근사치를 구하면 다음과 같다.

$$\begin{aligned} \Delta P &\approx P'(y) \times \Delta y + P''(y) \times \frac{(\Delta y)^2}{2!} = \frac{dP}{dy} \times \Delta y + \frac{d^2P}{dy^2} \times \frac{(\Delta y)^2}{2!} \\ &= -DD \times \Delta y + DC \times \frac{(\Delta y)^2}{2!} \end{aligned}$$

여기서  $DD$  = 금액듀레이션,  $DC$  = 금액컨벡시티를 나타낸다.

## 10. 컨벡시티의 정의

컨벡시티  $C$ 는 다음과 같이 정의

$$C = \frac{DC}{P} = \frac{\left(\frac{d^2 P}{dy^2}\right)}{P}$$

여기서,  $P$  = 채권의 가격,  $DC$  = 채권의 금액컨벡시티, 그리고  $y$  = 채권의 만기수익률이다.

채권의 컨벡시티는 금액컨벡시티를 채권가격으로 나눈 상대적 값으로 채권가격의 변동성을 상대적으로 표현하는 방식

[채권가격의 상대적 변화와 컨벡시티]

시장이자율 변화에 따른 채권가격의 상대적 변화는 다음과 같다.

$$\Delta P \approx -DD \times \Delta y + DC \times \frac{(\Delta y)^2}{2!}$$

양변을  $P$ 로 나누고  $DD/P = MD$ ,  $DC/P = C$ 를 이용하면

$$\frac{\Delta P}{P} \approx -\frac{DD}{P} \times \Delta y + \frac{DC}{P} \times \frac{(\Delta y)^2}{2!} = -MD \times \Delta y + C \times \frac{(\Delta y)^2}{2!}$$

( $MD$  = 수정듀레이션,  $C$  = 컨벡시티)